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모든 허가가 떨어지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도 4개월(기슬르월 -> 니산월)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왜 느헤미야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왕의 질문에 그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 인간관계를 가꾸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 중 많은 부분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상시 그의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말과 행동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왕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3.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주로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터 속에서,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 중요한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계속 기도를 합니다. 4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빛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를 생활화한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빛어지시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기에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1)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25(월)	10/26(화)	10/27(수)	10/28(목)	10/29(금)	10/30(토)	10/31(주일)
막 5-6	막 7-9	막 10-12	막 13-14	막 15-16, 눅 1	눅 2-3	눅 4-5

QT

이번 주 QT 말씀

10/25(월)	10/26(화)	10/27(수)	10/28(목)	10/29(금)	10/30(토)	10/31(주일)
요 12:13-25	요 13:1-19	요 13:20-28	요 14:1-12	요 14:13-22	요 15:1-16	요 15:17-3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해야 하는 세 가지 일 중, 현재 내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 혹은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